



희망의 축구공으로 백혈병을 낮게 할 수 없을까요?



백혈병...

어쨌든, 그건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일 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16세 소녀와 그 가족에겐 큰 아픔이겠지요.

하지만, 소녀는 백혈병으로 ‘희망’이란 단어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이 홍명보 코치와 함께 백혈병 소녀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려대학교안산병원
KOREA UNIVERSITY ANSAN HOSPITAL



고려대 안산병원, 2007년 정해년 丁亥年 시무식 거행

세계 100대 병원진입을 위한 원년, 생동감 넘치는 새해 다짐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1월 2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2007년 시무식'을 거행하고 세계 100대 병원진입을 위한 원년이자 생동감 넘치는 정해년(丁亥年)새해를 다짐했다. 박영철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

가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였다. 특히 매출액 대비 20%의 성장을 보여 우리 모두의 무한한 잠재력과 용기, 의욕을 결실로 확인한 한해였다. 언제나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해는 다음해를 준비하는 초석을 닦는 해이자, 장기적으로 세계 100대 병원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삼아 양적성장 못지않게 질적성장까지 이뤄내는 한해로 만들어 그 어느 해보다 생동감 넘치는 고려대 안산병원을 만들어 보자"고 강조했다. 한편, 고려대 안산병원은 안산과 시흥 등의 대규모 공단에 신도시를 접하고 있는 지리적 조건에 맞춰 진료특성화와 지역유대강화, 대형 코호트연구 등의 다양한 병원 성장 동력을 도출해 경기지역 및 서해안 지역 대표병원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특히 진료역량에 있어 센터 중심의 진료서비스를 공고히 해 최근 외래환자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면호흡장애센터', '산업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 '재활의학센터', '오목가슴클리닉'과 '인간유전체연구소', '의과학연구소', '노인건강연구소' 등을 통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의료기관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 100대 병원 진입을 목표로, 장기적으로 4,000여평에 달하는 병원내 운동장 부지를 개발해 세계적인 외래센터와 연구소 등을 운영 할 계획이다. 

신년사 新年校

친애하는 고려대 안산병원 교직원 여러분!

희망의새해 정해년(丁亥年)을 맞아 교직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한 한 해이자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과 자신감을 확인한 해였습니다. 언제나 묵묵히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고려대 안산병원 교직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안산병원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의료의 불모지였던 안산지역에 인술의 뿌리를 내린지 22년이 지나는 동안 안산, 시흥 등의 대규모 신도시와 공단을 접하고 있는 특성에 맞추어 진료특성화와 지역유대강화, 대형코호트연구등의 다양한 병원성장동력을 도출해 경기권역 및 서해안지역 대표병원으로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또한, 고려대 안산병원은 그간 수준 높은 의료의 질과 최첨단 의료장비, 병원의 규모면에서 전국 우수의 어느 의료기관과 비교해도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작년에는 경영혁신 평가의 일환으로 실시한 "MBO 목표관리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의료원산하 3개 병원 중 가장 합리적인 병원경영과 최고의 목표달성율을 보여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전문 의료인력을 확충함과 동시에 특성화센터를 집중 육성해 보다 탁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 외

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는 각종 연구소와 의료진을 지원해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 선진의학 구현을 위한 의료 메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로비와 외래를 중심으로 병원환경을 개선해 '고품격의 편리한 병원'으로 고객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더 나아가 3,958평에 달하는 병원내 운동장 부지를 장기적으로 개발해 100만 여명을 넘는 대도시로 성장한 병원 배후 도시의 인구증가와 지하철 4호선과 기반 도로망의 확충으로 증가하는 수도권 지역주민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안산병원이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세계 100대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교직원이 협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비상을 위한 도약대는 마련되었으며 우리에게는 실천만이 남아 있습니다.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보다 한 가지씩만 더 실천하고, 한번 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며, 한번 더 교직원간 우애를 다진다면 우리가 꿈꿔왔던 그 날이 성큼 다가올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도 고려대 안산병원은 설립정신을 살려 지역사회주민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참된 박애정신과 인술을 바탕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 환자에게 인정받는 병원, 지역주민에게 사랑받는 병원, 내원객에게 감동 주는 병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서비스'와 '나눔과 봉사'의 사랑실천 행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 정해년 역시 지난 해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우리가 처음 의료계에 발을 디뎠던 초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에 무한한 자긍심과 애정을 가져 누구나 신뢰를 가지고 우리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열악할지라도 함께 사랑과 화합으로 서로 도우며 이겨나갑시다. 2007년 새해는 그 어느 해보다 생동감이 넘치는 한해로 만듭시다. 전 교직원이 모든 직종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대와 희망 속에 생기와 활력이 넘치는 병원을 만들어 봅시다.

끝으로, 어느 병원보다 힘들고 고단한 여건에서도 변함없는 병원사랑과 부단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교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한번,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에 가정에 무한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07년 정해년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 박 영 철





서해안시대 거점 응급의료의 메카, 고려대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

지리적 특수성과 응급의료센터의 역량을 토대로 서해안권역 중심 응급의료기관으로 성장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수인산업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요충지로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공단배후 도시로서 인화물 폭발사고, 중독사고, 대형화재 등의 위험도가 높은 안산의 지역응급센터로 2000년 개설되었다. '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가 24시간 상주하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외상, 심혈관계 질환, 뇌혈관계질환, 소아응급상황 등에 전문적이고도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반월, 시화공단의 거점 응급의료센터로서 안산시는 물론 경기 남부 및 서해안고속도로 일원의 응급의료체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사회 응급의료서비스 실현

주5일제 시행이후 한 순간도 공백을 허락지 않는 의료서비스의 보루로서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토록 자체적으로 방사선실, 응급센터 전용 원무과 및 약국, 응급수술실 등 병원 전체의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응급상황별로 심도 있고 안락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경중, 중중 집중치료실 등으로 병실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적시에 양질의 응급의료를 제공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다발성 외상이나 심정지 등 불안정 환자의 경우 초기 안정화 및 소생처치 등을 위해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비침습순환감지 장치, 고속가온 혈액투여기 등 전문적 장비를 구비한 소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물 중독치료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해독제를 갖추고 전문적인 중독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임상적 경험과 폭 넓은 의학 지식이 요구되는 경환자실은 비디오 내시경 등을 갖추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선 진료하여 경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을 줄이고

진료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과 응급의학과 역량을 토대로 고려대 안산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서해안권역의 중심 응급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병원의 전 응급의료체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응급의료센터' 내에서는 전문 각 과와 협력하여 '약물중독센터'와 '외상센터' 등 전문의료센터를 분화 설치하여 국내에서 선도적인 응급의료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재해 또는 대형사고 등에 각종 지역기관 및 유관병원, 소방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만큼 이러한 사회 공공조직과 협조하여 1999년부터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처치 교육, 지역보건교사를 중심으로 기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전반에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Interview - 응급의료센터 이성우 소장

세계최고수준의 응급의학의 정수를 보여주겠다!



이성우 소장은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외상전문 응급의료와 독성의학분야로 심화된 진료를 제공하며 '대한응급의학회' 논문심사위원, 학술위원, 고시위원 등을 역임해오고 있다. 이성우 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센터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 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수준 향상과 선진국형 라이프스타일로 뇌졸중, 심근경색 등 급성질환과 도시화에 따른 각종 재해, 교통사고, 폭력, 약물중독 등 응급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응급상황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소생시키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응급의료센터의 중요성은 거점병원을 지향하는 대형병원의 심장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날로 지역사회의 응급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라 향후 서구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외상전문센터', '약물중독센터'를 센터 내에 분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 소아 인구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특성에 맞게 '소아응급센터'를 특성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고려대 안산병원이 선도적 거점병원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센터 이성우 소장팀은 최근 심근경색으로 심장기능이 정지되어 응급실에 이송되어온 환자(박OO씨, 남·37세)와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호흡부전으로 응급실에 도착한 환자(최OO씨, 남·42세)를 대상으로, 세계최초로 인공심폐기 이용해 심 정지환자 살려내는 등의 세계최고수준의 응급의학의 정수를 보여줬다. 이성우 소장은 "심장이 정지되어 응급 수송되어온 환자를 소생시키고, 환자를 회복시킨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례는 국내 응급체계와 의료진의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다"고 말했다. 이번 시술 결과는 심폐소생전문 저널인 리서시테이션(Resuscitation)에 2007년 상반기에 게재될 예정이다. 🏆



정형외과, '디지털 헬스 태블릿PC' 활용 시스템 도입

환자정보 이동간에 액세스하고 기록할 수 있어



고려대 안산병원은 최근 태블릿PC를 활용해 의사·간호사 등이 태블릿 PC를 활용해 병동 등에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진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의료진 및 환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스템의 원리는 무선인터넷을 병동에 가설해 병원 PACS시스템을 의료진이 휴대하고 있는 태블릿PC와 연동시켜 환자의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 한마디로 이 시스템은 무선으로 태블릿PC를 활용해 병원 내 인력들이 환자의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인 것이다.

정형외과 박종웅 교수는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태블릿PC로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의사가 환자 정보를 적시에 액세스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서비스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형외과 박준수 전공의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해 의료환경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의도했는데,

의료진 및 환자 모두 만족하고 있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병원 내에서도 이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도입되어 다른 임상과에도 널리 활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태블릿PC를 활용한 실시한 환자 상태 체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의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환자 상태에 이상이 왔을 때 환자 옆에 있는 간호사와 다른 곳에 있는 의사가 이 태블릿PC로 환자의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면서 공간에 제약을 받지않고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료진, 간호사, 환자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디지털헬스 케어시스템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오목가슴 수술의 세계 최고봉, 고대 안산병원 오목가슴클리닉

옴목 들어간 함몰가슴, 이젠 몸도 맘도 활짝 펴고 사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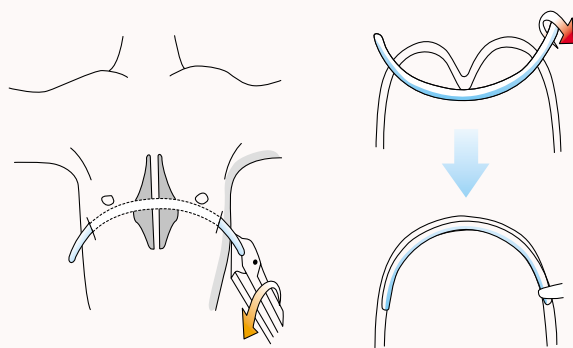
오목가슴은 앞가슴 뼈가 함몰된 선천적 흉벽기형으로 1천명 중 1명꼴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가슴이 함몰되면 흉벽이 가슴 내부 장기를 압박함으로써 심장, 폐 기능의 장애와 발육저하 등을 유발하며 특히, 유·청소년기에는 미관상 문제로 심각한 정서적, 심리적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의료계의 정상에 오른 분야가 있다. 바로 오목가슴수술 분야. 그 중심에는 고려대 안산병원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가 있다. 지금까지 박 교수의 오목가슴 수술건수는 810례를 넘어섰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록이고, 지금도 갱신되고 있다.



흉부외과 박형주 교수

박 형주 교수, 오목가슴 수술에 일대 혁명 일으켜...

1999년 국내최초 너스수술법 도입으로, 단 1cm 흉터만 남기고 깔끔치료



오목가슴교정을 위한 기존의 라비치 수술법은 가슴을 절개하여 갈비뼈를 잘라낸 뒤 다시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대수술’이었다. 1997년 발표된 Donald Nuss의 최소침습 수술법은 오목가슴 수술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Nuss는 다양한 형태에 대한 후속 교정기법을 개발하지 못하

여 비대칭형이나 성인 등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술결과가 좋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러나 1999년 박 교수는 국내최초로 너스 수술법을 도입하여 오목가슴 수술에 일대 혁명을 일으켰다. 가슴 양 측면을 약 1cm 정도만 절개하여 구부린 금속막대를 가슴 속으로 삽입, 함몰된 뼈를 들어 올리는 방법이었다. 박 교수는 지속적으로새로운 이론과 수술기법을 고안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했고 이를 여러 국제 학회에 발표, 학술적으로도 검증받았다. 수술기술과 수술건수에 있어서도 세계최정상이다.

▶ 기존 수술법과의 비교

	라비치수술(old)	너스수술(new)
수술 상처	가슴 앞쪽, 매우 크다 (가슴앞쪽 20~30cm)	양 측면, 1cm 정도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늑연골 절제 및	있다.	없다.
흉벽 상태	흉벽의 결손 혹은 유착 및 수축	정상 흉벽, 유연성 및 탄력성 유지
수술 시간 및 회복	길다(입원기간 10일 이상)	짧다(입원기간 4~5일)
수술 시 출혈 및	많다	거의 없다
수혈 가능성	높다	매우 낮다
비용효과	보통	탁월

끊임없는 연구와 새 수술법 도입으로 오목가슴 수술의 ‘패러다임’ 바뀐다

국내 언론 대대적 보도, 미국 등 해외에서도 환자방문

한편, 새로 개발된 너스 수술법은 도입 당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술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늘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고 박 교수는 이 과정에서 전혀 새로운 개념들과 기구, 기술들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오목가슴 수술은 주로 15세 미만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수술했을 뿐 성인은 뼈가 단단해 위험성이 높아 수술을 꺼려했다. 이 때문에 성인이나 비대칭형 오목가슴 환자는 기존 라비치 수술을 받아야했다. 박 교수는 너스수술을 변형하는 연구해 착수해 연달아 새로운 술기들을 개발했고, 그동안 불가능으로 통했던 51세 환자를 대상으로 너스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박 교수의 너스수술 성공사

례가 KBS 9시 뉴스 등에 보도되자 전국에서 오목가슴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1999년 이후 매년 겨울방학 때는 매일 4~5건의 오목가슴 수술이 이루어질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당시 각 대학병원의 오목가슴 수술건수가 연 평균 4~5건 정도임을 감안할 때 매일 일년치 수술을 했던 셈이다. 미국, 중국 등 해외에서 환자가 찾아오기도 하고 포르투갈, 일본 대만 등에서 초청 강연회 및 시술회를 여는 등 글로벌 의료인으로서의 명성을 떨치고 있다.

외국의사들도 박 교수에 술기 전수받기 위해 방한

너스수술법의 창시자와 협력, SCI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박 교수의 뛰어난 술기와 학술적 성과들은 국제학회를 통해 발표되면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의 많은 의사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뿐 아니라 외국의 의사들이 방문하여 박 교수의 수술기법을 전수받고 갔다. 또한, 이 수술의 창안자인 미국의 Dr. Nuss와 활발한 교류, 협력을 하고 있고, 영국 Royal Brompton Hospital의 Professor Goldstraw를 비롯하여 대만, 포르투갈, 러시아, 중국, 아르헨티나 등 해외 의사들로부터의 자문이 잇따르는가 하면, 외국 학회와 병원 등에서 live surgery demonstration 등을 실시해 실력을

공인받았다. 특히, 우수한 국제(SCI) 학회지(The Annals of Thoracic Surgery, The Archives of Pediatric and Adolescent Medicine)에서 논문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오목가슴 수술 워크숍’에서 비대칭형과 대칭형, 소아와 성인 등 형태별로 다른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오목가슴에 대한 독창적인 교정술을 직접 시연해 싱가포르 마운트엘리자베스 병원 James Wong 교수 등 국·내외 흉부외과 의사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오목가슴분야로는 드문 공개 시연인 만큼 박 교수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최다 수술사례를 보유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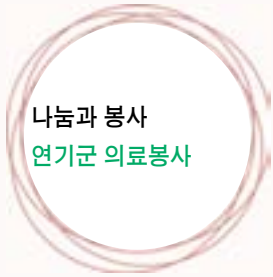
마음의 병까지 안겨 주는 오목가슴, 박형주 교수와 상의하세요!

세계 1위, 오목가슴수술의 메카, 고려대 안산병원 ‘오목가슴클리닉’

박형주 교수의 오목가슴 수술건수는 매년 100건 이상, 현재까지 810례로 미국과 유럽을 포함 세계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최신 오목가슴 치료법인 너스수술은 현재 국내에서 매년 총 200례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그중 절반을 박 교수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국의 몇몇 대학에서 나누어 하고 있을 정도로 박 교수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미국에서 초차도 단일 인물이 100례 이상의 수술을 집도한 사례를 찾을 수 없고, 일본과 유럽은 그보다 더 뒤쳐져 있다. 세계 최정상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오목가슴클리닉’, 명실상부한 국제 오목가슴 수술의 ‘메카’라 할 만하다. 🏥

2007년 1월 ‘오목가슴 수술 워크숍’에서 국·내외 흉부외과 의사들에게 술기를 전하는 박형주 교수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봉사단, 농촌 의료봉사활동 실시

‘나눔과 봉사’는 고려대의료원의 핵심가치 중 하나로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은 지역사회를 비롯하여 파키스탄, 스리랑카 등 해외의료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사랑의 인술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지난 11월 25일 충남 연기군 서면사무소 2층 대강당에서 연기군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고려대 서창캠퍼스(부총장 이광현)및 연기군(군수 이기봉)과 함께 ‘무료진료 협정’을 체결했다.



사랑의 인술로 농민의 몸과 마음 달래

고려대 안산병원은 11월 25일 충남 연기군 서면사무소에 일일 사랑의 진료소를 개원했다. 이날, 의료봉사활동 개시 1시간 전부터 연기군 서면사무소 인근에 거주하는 용암리, 고북리 등 주민 50여명이 몰린 가운데 시작된 진료는 아침부터 밀린 환자들로 인해 늦은 오후까지 계속됐다. 진료대상자는 혈액 및 소변검사, X-선, 심전도검사 등 무료검진과

내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등의 진료를 받았으며, 이를 통해 봉사단은 하루 동안 연기군민 약 150여명을 돌봤다. 이날 환자의 대부분은 지역 노인층으로 평생 동안 고된 노동으로 인해 대대수가 관절염, 요통 등 퇴행성 질환을 호소한 가운데 심혈관 질환을 비롯해, 백내장, 이명증상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었다. 이번 봉사활동에 참가한 의료봉사단은 박영철 원장을 단장으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사회

사업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36명의 자발적인 지원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검사결과는 병원에서 최종 판정해, 검진 결과를 전달할 예정이다.

고려대서창캠퍼스 및 연기군과 ‘무료진료 협정’ 체결

의료봉사활동 후 연기군 서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연기군 등은 이웃과 함께하는 참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연기군 주민에게 의료봉사와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기 위한 뜻을 모아 ‘무료진료 협정’을 체결했다. 박영철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인술을 통한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어르신들을 검진해 본 결과 고령화 부녀화된 농촌의 열악한 의료환경과 더불어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실정이었다.”고 말했다. 나눔과 봉사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할린동포 의료봉사, 필리핀심장병어린이 지원사업, 안산시민 유방암무료검진, 각종 해외의료봉사 등의 모든 활동들은 모두 사랑실천을 통한 힘찬 발걸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려대 안산병원은 향후 지속적인 인술의 실천을 통한 사랑실천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

최신 장비 소개

Integris Allura Biplane

각종 혈관질환의 문제를 여는 열쇠

각종 혈관질환의 문제를 여는 비밀의 열쇠는 혈관조영촬영실 안에 있다. 혈관조영(Angiography)검사란 심장부터, 대동맥, 뇌 혈관, 복부동맥과 그 분지, 손, 발의 혈관까지 우리 몸의 모든 동맥과 정맥을 대상으로 혈관의 이상 유무를 알기 위한 검사이다. 흔히 시행하는 검사로는 뇌 혈관 질환을 위한 뇌 혈관조영술, 복부, 비뇨기계 질환의 간, 신장혈관 조영술, 사지의 동맥 및 정맥 조영술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이 역할을 하는 주인공은 Integris Allura Biplane이란 장비로서 이것은 영상의학과 내의 혈관조영촬영실에 설치되어 있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설치한 Integris Allura Biplane는 일반적인 검사는 물론, 심장(Cardiology), Neuro-radiology(신경방사선), Pediatric Cardiology(소아심장) 검사 등 모든 부위의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Table과 장비의 위치 변경이 용이하여 말초신경(Peripheral) 및 다양한 부위를 검사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설정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일반 혈관촬영(angiography) 뿐만 아니라 3D 이미지의 구성에 필요한 자료의 획득이 가능하다. Integris Allura Biplane은 환자에게 유해한 환경을 최소화 하면서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고안 되어 있다. 그래서 환자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면서도 훌륭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X-ray에서 혈관을 볼 수 있도록 주사하는 조영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다. 또한 기기와 환자, 술자의 안전을 위하여 II tube, X-ray tube에 센서가 있어서 장비와 그 외 주변의 사물과의 충돌을 예방 할 수 있다. 2002년에 도입된 기기로서 2001 IF상을 포함 여러 상을 받아 실용성 뿐만 아니라 디자인 면에서도 인정을 받은 장비로 심장혈관계 이미지를 얻는 기계로서는 선도적인 장비라 할 수 있다. 또한, Integris Allura Biplane은 고대 안산병원에서 동맥 및 정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 정확한 정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치료를 도와 높은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글 ● 원내기자 박경섭(사설팀) kyungsub78@naver.com

최고를 지향하는 인간중심의 참 병원

디카세상

찰칵찰칵!!!

아~ 슬픔의 땅 인도네시아!

지난해 5월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에서는 강진으로 5000여명이 숨지고 20만여명이 생활 터전을 잃었습니다. 슬픔의 땅으로 변한 인도네시아... 당시에 고려대의료원 해외의료 봉사단은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며 사랑의 인술을 실천했습니다. 현장에 함께했던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 김윤섭 사회복지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에 슬픔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

사진 제공 ● 김윤섭(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진을 사연과 함께 manpr@kumc.or.kr 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5만원)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미소로 말합니다. 고객서비스팀



환자는 수준 높은 병원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런 병원을 찾고 있다. 환자는 병원에서 단순히 진료만을 원하는 것일까? 환자들의 병원 만족도는 의료의 질 뿐만 아니라 직원의 친절도와 병원의 편의시설 등을 통해 결정된다. 최근 의료기관은 이런 고객들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날로 증대되는 고객관리 및 진료회송, 자원봉사자 관리 업무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고려대 안산병원 또한 이런 고객의 기대에 부응코자 2001년 12월 고객서비스팀을 신설해 고객만족을 위해 정진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팀은 고객만족 청지기

고객서비스파트에서는 상담이나 안내를 통하여 병원에서 생긴 불편한 점의 개선 또는 직원과 관련한 불만족 의견을 상담함으로써 해당 과에서 해결해 주지 못한 문제 및 각과의 이해관계에서 발생한 민원 상담의 민원을 조정해 환자의 불편해소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병원 로비 중앙에 위치한 안내센터에서는 고객들의 모든 불편사항을 접수해 즉시 문제를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담당해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진료회송파트에서는 지역 병(의)원에서 상위 진료기관으로 의뢰한 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진료한 후 진료 결과를 의뢰 병(의)원으로 회신함으로써 지역 병(의)원과 의 협력체계 유지 및 협진진료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유일의 대학병원으로서 의료전달 체계의 거점병원으로 고대 안산병원이 위상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에 민감하기

고대 안산병원은 대한민국 대표 친절병원으로 다가가기 위해 고객의 칭찬 및 불편사항을 체계적으로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근간이 되는 데이터통합 프로그램인 VOC(voice of

customer)System을 가동하는 한편, 고객 소리함, 의료원 홈페이지, 포탈사이트, 방문 및 전화접수 등 각종 채널을 통해 수집한 고객의 불편 및 만족사항 등을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 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매달 원내 ‘고객의 소리함’을 통한 접수건수를 집계한 결과를 반영해 친절직원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고객서비스팀은 더욱 더 고객만족 향상에 정진하며 진료절차나 행정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불만족 사항을 발견, 병원내부에 환기시킴으로써 서비스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객 만을위한 고객서비스팀

고대 안산병원은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보다 높은 고객만족도 향상과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 팀으로 나뉘어 팀장 및 수간호사 등이 순번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및 내원객의 처방전발행, 검사실안내, 외래위치안내 등의 고객도움 활동을 전개해 고객만족 극대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글 ● 원내기자 이명훈(임상시험센터) yearman@naver.com



응급실 이경진 수간호사,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응급의학회 및 병원 응급간호사회 학술위원 등 활발한 학술활동 공로 인정받아

응급실 이경진 수간호사는 지난 11월 응급간호와 관련 학술활동 등에 대한 ‘2006 전국 응급의료 전진대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했다. 응급의학 전문의 및 수련의, 응급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응급의료관련 종사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을 수상한 이경진 수간호사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며 “함께 응급실에서 동고동락하는 응급실 간호사들에게 더욱 감사드리고, 그들이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대표로 받은 것 같다.”며 응급실 간호사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도 잊지 않았다.

중환자실·외래·병동·응급실 등에서 20여년간 근무한 베테랑 수간호사

항상 위급한 환자들로 북적이는 응급실... 그래서 응급실의 의료진들은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 가운데 경력 20년의 베테랑 간호사 이경진 수간호사가 있다. 중환자실·외래·병동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응급실 수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경진 수간호사는 “병동이나 중환자실에 비해 환자 진료 및 치료가 드라마틱하고 급박하게 진행된다. 그렇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의 적절한 대응으로 거의 사망에 이른 환자가 소생하고, 병세가 호전되어 병실로 옮길 때는 간호사로서의 보람을 느낀다”며 응급실의 특수한 상황과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꺼져가는 생명 살리는, 심폐소생술 전도사

이경진 수간호사가 응급실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은 “병원이 아닌 곳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된 것.”이라며, 응급상황에서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경진 수간호사는 병원 근무 뿐 아니라, 응급의학회 및 병원 응급간호사회 학술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일반인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이론 및 실습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얼마 전 안산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교육하였을 때에는 성인들보다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보기 좋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심폐소생술 방법을 교육 시키는 일이 매우 보람 있었다.”며 심폐소생술 전파에 대한 열의를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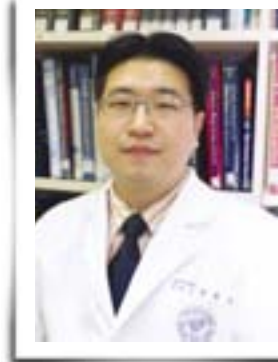
환자사랑과 정성간호로 국내최고 수준의 응급간호 실시할터

마지막으로, 이경진 수간호사는 “응급실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는 모두 다급한 마음에 응급실을 찾는 것이지만, 실제 응급실에서는 응급실 내원 순서가 아닌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진료 및 처치를 시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조금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며 응급실을 이용에 대한 당부와 “응급실을 내원하는 고객들의 기대치에 부응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었다. 

글 ● 원내기자 송보라(간호부) vio97@kumc.or.kr

이비인후과 최지호 전임의, 미국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 획득

국내 최연소, 국내 이비인후과 의사로는 2번째



고려대 안산병원 이비인후과 최지호 전임의가 우리나라 의사로는 최연소, 이비인후과 의사로는 2번째로 최근 시행된 미국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국내에 아직 생소한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은 수면의학분야의 보다 체계적인 발전 및 관리를 위해 수면선진국인 미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제도로 최지호 전문의가 수면의학 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수면의학에 관한 고려대 안산병원의 위상도 높아져 이 분야에 관한 선진국 병원들과 명실상부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미국수면전문의(sleep specialist)를 취득한 국내 전문의는 불과 10명 이내에 불과하다. 미국수면전문의가 남다른 이유는 수면의학의 학의 발전과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측면과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코골이-수면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수면장애 환자를 보다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데 있다.

수면클리닉은 이미 서구 선진국으로부터 그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분야 자격이 도입되어 보다 더 국가적인 체계 내에서 관리와 학문적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지호 전임의는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이 단순한 잠 버릇이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수면장애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임상연구로 수면의학의 한 단계 진일보시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새생명 선물한 산타병원, 필리핀 심장병환아 등 5人 무료심장수술 시행



고려대 안산병원(원장 박영철) ‘필리핀 심장 병어린이 지원사업단(단장 장기영, 소아과)’은 12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던 필리핀어린이 등 5명에게 무료로 심장병 수술을 실시해 ‘새 생명’을 선물했다. 새 생명을 얻게된 주인공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로, 심부전 증상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수유곤란을 호소했던 에릭손말(2)군과 심실중격결손 진단을 받은 닉나가(6)군 등 5명이다. 이번 사랑의 심장병 수술은 고려대 안산병원이 수술과 치료, 감염 부분을 담당하고, 성안선교회(심장병어린이재단, 부산소재)가 여행경비와 1인당 치료비 500만원을 지원해 이루어 졌으며, 지난 9월 두 기관은 향후 필리핀뿐만 아니라 베트남, 러시아를 비롯한 국내·외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사랑실천 행보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간호부, 홈페이지 새 단장



안산병원 간호부(부장: 김정숙)가 2007년 새해를 맞아 1월 2일 간호부 홈페이지를 새로 단장했다. 새로 단장한 홈페이지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의료정보 및 간호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책자로 발간했던 간호부 소식을 홈페이지로 흡수하면서 이미지와 내용을 강화하고 환자간호를 병동간호, 외래간호, 외과중환자실, 응급의료센터, 분만실 등으로 세분화하여 간호활동을 설명하는 한편,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당뇨교육, 장루환자 교육, 스포츠물리치료 분만교실 등 환자교육 등을 폭넓게 소개했다.

2006, 안산병원 QI경진대회 개최



안산병원은 11월 15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교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내 질 향상 활동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QI경진대회에서는 8개팀의 구연발표와 19개팀이 참여한 포스터 발표가 SESSION 1,2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박정호 적정진료관리위원장 외 심사위원 12명의 1차 서류심사 및 포스터 발표 심사과 2차 구연발표 심사를 통해 우수활동 내용을 시상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대상은 ‘식재료원가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직원식 잔반량 감소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영양팀에 돌아갔다.

‘제 4회 최소침습 수술센터 심포지엄’ 성료



안산병원은 12월 15일 대강당에서 ‘제4회 고려대 안산병원 최소침습 수술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해 국내 최고수준을 자랑하며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소 침습 수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소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신경외과 박정율 교수의 ‘만성 불응성 통증에 대한 고주파 치료’, 산부인과 김탁 교수의 ‘자궁근종 치료에 있어서의 최소침습수술’, 성형외과 윤을식 교수의 ‘성형외과 영영에서 고주파의 이용’, 이비인후과 권순영 교수의 ‘레이저를 이용한 후두미세수술’ 등 총 9개의 연제가 발표됐다.

‘환자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잔치’ 개최



안산병원은 11월 28일 본관 2층 대강당에서 ‘환자와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잔치’를 개최했다. 간호부 주최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입원해 있는 환자의 쾌유를 바라는 뜻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선물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약 250명의 환자와 보호자,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73명동 간호사들의 ‘사랑으로’를 시작으로, 관리팀 문종웅 팀장의 색소폰 연주 ‘Summer time’, 63명동이 준비한 ‘바빠이’, 외과 중환자실의 ‘아름다운세상’ 등의 12팀의 열띤 노래와, 춤, 연주 등의 다채로운 무대가 진행됐다.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로비 안내근무’ 개시

안산병원은 최근 본관1층 로비 및 외래 등에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한 로비안내 근무’를 실시했다. 근무자는 내원하는 환자 및 보호자 등에게 보다 높은 고객만족도 향상과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고취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오후 팀으로 나뉘어 팀장 및 수간호사 등이 순번근무를 실시하며, 환자 및 내원객의 처방전발행, 검사실안내, 외래위치안내 등의 고객도우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헬스가이드
의학상식

잘하면 보약, 못하면 독

추위와 활동량 감소로 면역력, 체력 떨어져 가장 운동이 필요한 계절

추위로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최고라는 데 운동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수영을 열심히 하면 사람도 추위에 물에 들어가기 싫어지고 달리기,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등도 눈과 추위로 빙판길에 되어버리는 겨울에는 쉽지가 않다. 자칫 운동을 잘못했다가는 건강증진은커녕 뇌졸중, 협심증, 관절염 같은 병만 얻을 수도 있는 것이 겨울철 운동이다. 전문의들은 겨울철 운동은 급격한 온도차 등 환경요건과 자신의 체력에 맞춰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가야 한다고 조언하는 데 겨울철 운동요령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새벽운동보다 저녁운동이 안전하다.**
겨울이 되면 추위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몸의 생리적 작용으로 인해 중풍이나 심장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이 있는 사람, 나이가 40살이 넘어서 운동을 처음 시작하려는 사람은 겨울철 새벽운동은 가능하면 삼가고 저녁시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2배로 하자.**
겨울철 운동을 하다 보면 순환기계 질환 못지않게 흔히 발생하는 것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 등 근골격계에 부상을 입는 경우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겨울에는 이미 활동량이 줄어 몸이 다른 계절과 달리 뻣뻣하기 쉽고 대부분의 운동인구가 준비운동과 마무리운동을 등한시하기 때문이다.운동전후에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철저히 해줘야 근육과 인대가 유연해져 운동 중 부상을 막아주며 본 운동 역시 약한 강도로부터 시작해 점차 강도를 올린다 마지막에는 다시 약한 강도로 돌아와 같은 시간만큼 해주는 것이 좋다.
- 셋째, 겨울에 맞는 방한용 운동복장을 갖추자.**
운동인구가 많이 늘기는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운동복장을 갖추지 않고 운동에 나서는 경우가 흔히 있다. 특히 겨울철 운동복장은 운동을 해야하는 인체의 기능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보온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령층은 모자, 방한밴드 등으로 머리보온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 넷째,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조절하자.**
겨울에는 아무래도 체력도 저하되기 쉽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운동이나 강도 또한 달라질 필요가 있다. 이전에 야외에서 달리기를 즐겼다면 빠르게 걷기로 바꾼다든지 실내에서 런닝머신을 하는 쪽으로 바뀐다. 그리고 여름에만 수영장을 찾지 말고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자 근골격계에 부담이 없는 수영을 해보도록 하자. 특히 겨울에 새롭게 운동을 시작한 사람은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만회라도 하듯이 무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도움말 ● 고려대 안산병원 순환기내과 안정천 교수



사랑과 봉사, 그리고 환자중심의 시흥현대요양병원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노인성질환과 성인질환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정부의 노인요양시설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최근 개원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노인환자들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한 편이다. 노인환자들을 위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되고 있는 시흥현대요양 병원을 찾았다.



경기서부권 최대 규모의 노인전문병원

시흥현대요양병원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병상급으로 경기서부권 최대 규모의 노인전문병원이다. 2006년 4월에 개원한 이 병원은 노인전문병원으로 단순한 요양뿐 아니라 재활을 통한 회복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중풍, 치매, 뇌졸중, 말기 암 등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 및 물리치료, 통증클리닉 등을 전문으로 하는 노인전문병원이다. 노인성질환 및 성인질환의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두 개의 내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등의 진료과가 있고 전문의 및 노인전문간호사의 상주를 통한 24시간 진료체계와 중환자실 운영으로 응급상황에 대처 가능한 시스템을 갖췄다.

어르신들을 배려한 최신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

시흥현대요양병원은 입원하신 어르신들을 배려한 환자중심으로 시설되어 있다. 모든 병실의 바닥은 찰질도 가능한 맥반석 온돌이 시공되어 있고, 문턱이 없는 병실은 환자들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며, 각 침대별 설치된 공기정화장치는 쾌적한 병실환경을 제공하여 준다. 최신 시설로 월풀욕조 치료시설의 보유는 물론 각 병실에는 화장실 및 샤워장치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어있다. 탁 트인 운동치료실과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은 아늑한 휴식공간 같은 느낌을 준다.

또한, 노인전문병원에 맞는 음악치료, 원예치료, 언어치료 등 다양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어버이날과 노인의 날, 성탄

절 등 기념일에 음악회를 개최하고, 월 1~2회 이미용 봉사료 일상생활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병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여 있고 주변에는 오이도와 월곶 포구, 소래산, 옥구도시 자연공원 등 관광명소가 있다. 인접한 지리적 위치와 수려한 주변 명소는 가족들의 주말 나들이 코스와 함께 환자 면회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준다.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시흥현대요양병원 이남훈 진료원장은 언제나 성심성의껏 환자분들의 치료와 재활에 힘을 쓸 것을 약속하며 “보다 나은 병원, 친절환 병원, 환자들과 함께하는 병원,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진료협약체제로 중증환자의 안정적 진료와 협력병원간의 교류협력으로 지역주민의 의료의 질 향상과 병원상호 발전이 기대되므로 협력병원간의 역할 및 필요성을 당부했다. 노인전문요양병원은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노인성 질병 관리가 가능하고, 입원환자들에게 재활치료와 전문간호를 제공함으로써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환자가족들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기대효과도 있다. 시흥현대요양병원의 설립취지에 걸 맞는 기대와 확신을 가져본다. 

글 ● 산업의학센터 강봉구(b-goo@hanmail.net)

사진 ● 시흥현대요양병원 제공



“돈과 환경과 내부고객 만족, 세 마리 토끼를 잡아라!”

잔반감소 개선활동 통해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직원식 제공



전통적인 마케팅에선 외부고객 즉, 의료기관 밖에 있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의료기관은 급변하는 의료환경과 더불어 근무하는 직원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살맛나는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동기부여를 하고 고객지향적 사고를 심어줌으로서 외부고객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내부마케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고려대안산병원 QI(Quality Improvement)활동에서도 병원의 내외적 환경을 파악하고, 병원이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외부 고객뿐 아니라 내부 고객을 위한 지속적인 병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이번호에서는 [고려대 안산병원 2006년 QI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양팀의 잔반량 감소 활동에 관한 QI 활동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돈과 환경과 내부고객 만족, 세 마리 토끼를 잡아라!”

영양팀 QI팀(팀장:심윤숙 부팀장)에서는 ‘식재료 원가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한 직원식 잔반량 감소 활동’이라는 주제로 2006 QI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현재 병원에서 매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200Kg 정도. 2006년 6월부터 시행된 식대보험화로 인한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식단가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잔반의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영양팀에서는 환자식보다 직원식 잔반의 비율이 높은 것에 착안하여, 식당을 이용한 교직원 중 353명을 대상으로 2006년 6월 9일 직원들이 음식을 남기는 이유와 현재 직원식에 바라는 점을 사전조사 한 후 2006년 9월 27~28일 QI활동 전·후 직원식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및 인식변화를 조사하였다.

문제점을 개선하니 직원 만족도가 쑥쑥!

제한된 메뉴와 대상자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음식의 맛과 간, 잔반량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부족과 자율배식에 따른 음식량 조절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들은, 메뉴개선, 조리개선, 배식개선, 직원식 개선을 통한 ‘직원식 잔반량 25% 감소를 통한 월 식재료비 135만원 절감’이라는 총괄 목표에 이르렀다. 메뉴개선에선 선호/비선호 메뉴 순위 1위~20위를 작

성, 직원식 메뉴에 반영하였고, 메뉴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기존의 10일 주기 식단에 환자 특별식에 나가는 메뉴를 삽입하여 식단의 다양화를 꾀하였다. 조리개선시 담당자 1인의 검식에서 모든 영양사의 검식 및 영양사간의 의견 교환으로 검식을 강화했으며, 잔반량이 많거나, 직원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메뉴는 회의를 통해 레시피를 수정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배식개선으로 잔반을 남기지 않은 직원에게 후식과 스티커를 제공하여 ‘푸른 고대 안산병원’ 게시판을 완성시킬 수 있게 하였고, 매주 수요일 수다날(수요일은 다 먹는 날)을 정해 직원식당 입구에 전시, 알맞은 1인 분량의 음식이 담긴 상자림과 영양정보를 showcase에 전시함으로써 잔반감소 개선활동에 꾀하였다.

약 7개월동안 실시한 QI 활동은 그 결과 잔반량이 95g/명에서 73g/명으로 감소하였고, 잔반으로 버려지는 식재료비가 감소되어 직원식 식단가를 증가, 개선 전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하였고, 2차 설문조사에서 직원식 만족도가 식단, 맛, 음식의 질부분에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무한 경쟁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우리는 외부고객 뿐 아니라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의 길은 필수적이다. 

글 ● 원내기자 이선희(간호부) sunny5415@nate.com